

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Brief

2016. 06. 22

집필자

조경욱_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eonbuk
Institute

정책브리프 2016년 06월 22일 vol.7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프는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

1.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의 진화와 한계	04
2. 일·가정양립의 지표로 본 전북 현황	05
1) 일·가정양립지표 개요	05
2) 일·가정양립지표별 전북현황 및 특성	05
3. 정책적 시사점 및 활성화 방안	13

※이 자료는 전북연구원 기본과제 '전라북도 일가정 양립지원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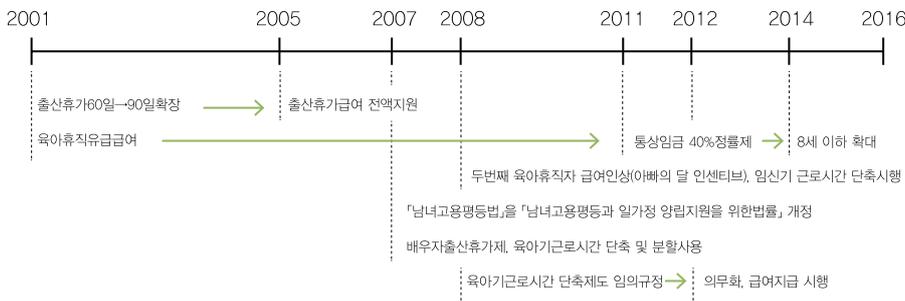
SUMMARY

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

-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다부처 사업으로 정책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지원정책과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고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 + +
-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일·가정양립 정책지표를 구축하여 정책인식, 이용실적 등을 측정하여 정책효과와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전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함. 이 글에서는 일·가정양립 정책지표에 따른 전북지역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 +
-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지금까지 정책의 주 수혜자는 여성, 정규직, 대기업으로 향후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필요함. 특히 전북은 10인 이하 사업장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의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함. 남성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이상 집중되어 있으나 증가율은 전북·경남·충북 등의 지역이 높게 나타나 양성 평등한 육아 환경조성을 선도하고 있음
-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시설 비율은 3.3%에 그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율은 84.4%로 전국평균(75.0%)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행방법에 있어서도 수당 지급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 설치비율은 증가하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이 진전되고 있음
- 전국 남녀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8시간(전북 42.1시간)전년도 대비 0.7시간 증가하여 OECD평균을 상회함. 전체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율(5.4%)은 낮지만 여성(여6.2%, 남 4.9%)과 주출산연령층(30~39세)에서 활용율(5.6%)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가정양립에 유용한 제도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과 더불어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해소하고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이상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할 수 있음
 - 휴가휴직제도 사각지대(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해소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유연근로제도 활용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해소
 -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 패키지제도 도입
 -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한 정책지표 공시
 -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1.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의 진화와 한계

- 맞벌이 부부 혹은 일하는 엄마가 증가하면서 일과 자녀양육의 병행이 어려운 환경과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여성의 취업이 단절되거나 또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출산의 기피와 연기 또는 자녀출산을 최소화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2015년 현재 205만 3천명으로 기혼여성의 21.8%를 차지하고 있음(전북은 58천명으로 18.8%)
 - 2015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2.55명에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1.3명)국가에 해당함(전북의 합계출산율 1.35명)
- 한국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일과 가사 및 양육이라는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년대부터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옴



- 현재의 일·가정양립지원의 제도화 수준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골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정책의 실제 활용도 및 수요자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임
 - 현재 일·가정양립 정책은 모성보호제도,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보육 및 돌봄정책, 여성일자리 정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와 실행 간에는 괴리 존재
 -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제도인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설계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저조하여 계층간, 직종간, 성별에 있어서 정책수혜 격차가 존재함
 - 예산부족과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민간기업의 인식과 참여가 저조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제 활용도 및 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양립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사항 등에 관한 통합적 관리와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다부처 사업으로 정책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지원정책과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고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통계청과 여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가정 양립 정책지표를 구축하여 정책인식, 이용실적 등을 측정하여 정책효과와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전북의 현황자료는 전무한 상황임
 -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일·가정양립 정책지표에 따른 전북지역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개선점과 지원체계 구축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일·가정양립의 지표로 본 전북 현황

(1) 일·가정양립지표 개요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고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일·가정양립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된 지표체계가 없었음
- 2014년부터 통계청은 여러 부처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것을 한곳에서 파악하도록 일·가정양립지표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를 구축하여 일·가정양립관련 정책 추진 정도를 파악 함
 -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가정양립지표는 5개 정책분야 19개 지표임. 그러나 일부 지표는 지역별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 함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지위변화를 점검하고 국제기구에서 측정될 수 있는 성 평등 지수를 개선·점검할 목적으로 5개 분야 46개 지표로 구성
- 본 글에서는 일·가정양립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지표」를 토대로 전라북도 일·가정양립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일·가정양립 지표는 중앙의 9개 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재 통계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지역차원에서 통계파악이 가능한 자료로 재구성함¹⁾
 - 일·가정양립지표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점을 2008~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각 통계 생산시점 및 주기가 동일하지 않는 지표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함

〈표-1〉 전라북도 일·가정양립 영역의 지표체계

구분	관리 지표	관련통계	소관부서	생산가능 시점 및 주기
기본지표 (4)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보육대상 아동 대비 시설아동 비율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3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년
	성별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점검지표 (5)	출산휴가 사용현황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년
	육아휴직 사용현황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년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년
	육아휴직자의 직장 유지율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년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보육통계/ 누리과정예산	보건복지부/ 교육부	년

1) 현 단계에서 통계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현황과 부모의 주 평균노동시간 등임. 따라서 두 지표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자녀연령 별 부모의 근로시간 자료로 대체하여 관련 지표를 파악하고자 함

(2) 일·가정양립지표별 전북현황 및 특징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보육대상 아동 대비 시설아동 비율

- 전국의 전체 보육시설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2015년 전체 보육시설은 42,517개소로 전년(43,742) 대비 1,225개소 감소함
 -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전체어린이집의 6.2%
 -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하고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확대설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임

- 2015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629개소(전년대비 5.6%증가) vs 전북 55개소(전년대비 1.9%증가)
- 2015년 전국 직장어린이집 785개소(전년대비 13.4%증가) vs 전북 19개소 (전년대비 26.7%증가)

〈표-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5	전국	개소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비중	100.0	6.2	3.3	2.0	34.4	51.9	0.4	1.8
	전북	개소	1,623	55	144	96	502	807	0	19
		비중	100.0	3.4	8.9	5.9	30.9	49.7	0.0	1.2
2014	전국	개소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비중	100.0	5.7	3.2	1.9	33.9	53.3	0.3	1.6
	전북	개소	1,654	54	144	97	506	838	-	15
		비중	100.0	3.3	8.7	5.9	30.6	50.7	-	0.9
2012	전국	개소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비중	100.0	5.2	3.4	2.0	34.0	53.9	0.3	1.2
	전북	개소	1,620	53	150	94	484	834	-	5
		비중	100.0	3.3	9.3	5.8	29.9	51.5	-	0.3
2010	전국	개소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비중	100.0	5.3	3.9	2.3	36.3	50.9	0.2	1.1
	전북	개소	1,531	49	166	78	477	756	-	5
		비중	100.0	3.2	10.8	5.1	31.2	49.4	-	0.3
2008	전국	개소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비중	100.0	5.5	4.4	2.9	39.7	46.3	0.2	1.0
	전북	개소	1,479	42	163	82	465	723	-	4
		비중	100.0	2.8	11.0	5.5	31.4	48.9	-	0.3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 전국 보육대상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아동비율은 60% 미만으로 낮은 상황임

- 2015년 전국의 전체 보육시설 아동 수는 1,452,813명이며 0~5세 보육대상아동 수(0~5세)대비 보육시설아동 비율은 53.02%임
- 전북의 전체 보육시설 아동 수는 55,226명이며 보육대상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아동 비율이 59.29%로 전국보다 6.27%p 높게 나타남

〈표-3〉 설립주체별 보육아동 수

(단위 : 명, %)

구분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아동 비율	보육대상 아동 수 (0~5세 아동수)	보육아동 수								
			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5	전국	53.02	2,739,901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전북	59.29	93,151	55,226	2,986	9,019	5,303	25,525	11,674	-	719
2014	전국	54.59	2,741,835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전북	61.81	94,369	58,328	3,057	9,649	5,534	27,290	12,296	-	502
2012	전국	52.82	2,816,103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전북	61.53	98,167	60,401	3,048	10,358	5,707	28,215	12,909	-	164
2010	전국	46.80	2,734,976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전북	58.78	96,178	56,531	2,659	11,189	4,718	27,077	10,769	-	119
2008	전국	40.80	2,782,972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전북	56.62	98,863	55,978	2,333	11,049	5,073	27,977	9,444	-	102

주 : 보육대상아동수 대비 보육시설아동 비율 = 보육대상 아동수(0~5세 아동수) / 전체 보육아동 수 × 100

자료 :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2014년 10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309만5천명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12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활용비율은 16.3%로 전년(16.1%)대비 0.2%p 상승함
- 시간제근로제를 제외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는 102만9천명으로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 대상 근로자의 33.2%에 불과하며,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5.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시간제근로제 66.6%, 시차출퇴근제 11.4%, 선택적근무시간제 9.6%, 탄력적근무제 7.0% 순으로 유연근무제 활용하고 있음
 - 시간제근로제를 제외하면 시차출퇴근제 34.1%, 선택적근무시간제 28.7%, 탄력적 근무제 21.0% 순으로 유연근무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남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고(4.9%), 주출산연령층에 속하는 30~39세의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27만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미혼보다 0.7%p 높게 나타남

〈표-4〉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단위 : 천명, %, %p)

구분	2013			2014			증감	
	임금근로자	활용인원	활용률	임금근로자	활용인원	활용률		
전체	18,489	2,970	16.1	18,945	3,095	16.3	0.2	
시간제근로제 제외	18,489	966	5.2	18,945	1,029	5.4	0.2	
성별	남	10,492	516	4.9	10,712	520	4.9	0.0
	여	7,998	449	5.6	8,232	509	6.2	0.6
연령별	15~29세	3,530	180	5.1	3,621	193	5.3	0.2
	30~39세	4,827	269	5.6	4,813	270	5.6	0.0
	40~49세	4,861	259	5.3	4,906	266	5.4	0.1
	50~59세	3,605	180	5.0	3,787	198	5.2	0.2
	60세 이상	1,667	77	4.6	1,819	103	5.6	1.0
혼인 상태별	미혼	5,158	262	4.9	5,390	265	4.9	0.0
	기혼	13,331	703	6.2	13,555	764	5.6	-0.6

주 : 특성별 분석은 시간제근로제 제외한 수치, 각년도 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 한국의 남녀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은 OECD평균을 상회²⁾, 현실적으로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음
 - 2015년 전국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6시간으로 전년(43.8시간)대비 0.2시간 감소함. 남자와 여자의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46.0시간, 40.4시간으로 전년대비 각각 0.2시간씩 감소하였음
- 전북의 2015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4시간으로 전국(43.6시간) 보다 1.2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08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 기준 42.4시간으로 나타남

2) OECD 발표(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에 따른 2014년 한국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전체 평균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인 1741.8시간 보다 315.2시간 많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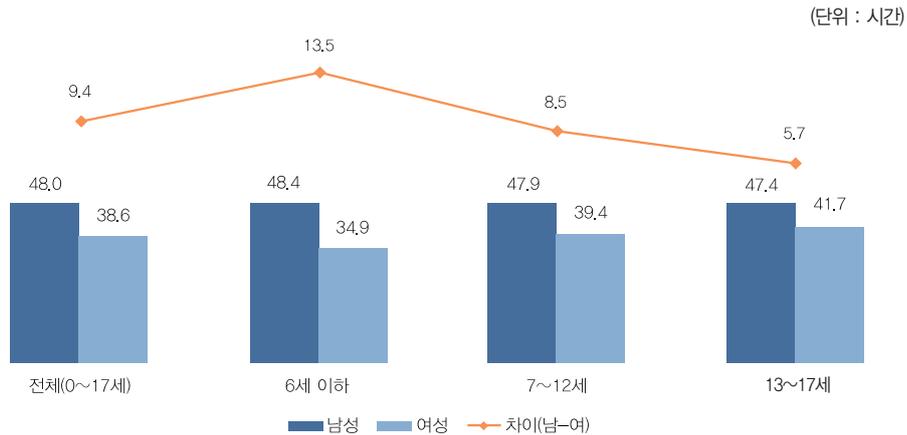
〈표-5〉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단위 : 시간, 천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전국	주당평균 취업시간	계	46.0	45.9	45.1	43.9	44.6	43.1	43.6	▼ 0.2	
		남	47.8	47.9	47.3	46.1	46.9	45.3	46.2	▼ 0.2	
		여	43.4	43.1	42.0	40.7	41.4	40.0	40.6	▼ 0.2	
	주36시간 미만 취업자수	계	3,447	3,110	3,617	4,534	3,634	4,715	3,969	3,998	
		남	1,530	1,277	1,501	2,034	1,472	2,064	1,571	1,563	
		여	1,917	1,833	2,116	2,500	2,163	2,651	2,399	2,435	
	주36시간 이상 취업자수	계	19,781	20,032	19,839	19,290	20,637	19,940	21,220	21,535	
		남	12,014	12,282	12,249	11,941	12,749	12,348	13,103	13,252	
		여	7,768	7,750	7,591	7,350	7,888	7,593	8,117	8,283	
전북	주당평균 취업시간	44.5	44.6	43.8	42.5	43.6	42.2	42.1	42.4	▲ 0.3	
	주36시간 미만 취업자수	159	142	153	186	161	185	180	172		
	주36시간 이상 취업자수	661	674	653	633	672	678	684	7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자녀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자(48.0시간)가 여자(38.6시간)보다 9.4시간 많으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남녀간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13.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자녀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2014)

자료 : 통계청, 「2015 일·가정양립지표」 보도자료, 2015.12.7

□ 성별 가사노동시간

-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성별격차가 큰 편이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성별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거의 없어 현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함
 - 2014년 전국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 42분, 여성 185분으로 성별간 큰 격차 보임
 - 전북은 남성 42분, 여성 188분으로 남성은 전국 평균과 동일하고, 여성은 전국평균보다 3분 더 높게 나타남
 - 전북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은 10년 전(2004년)과 비교하여 남성은 2분 증가하고, 여성은 17분 감소함. 같은 기간 전국은 남성 9분 증가, 여성 9분 감소 함

〈표-6〉 성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 분)

구분	2004				2009				2014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사노동	33	194	40	205	38	189	43	198	42	185	42	188
가정관리	23	152	28	168	28	149	31	156	32	149	33	158
가족보살피기	10	42	12	37	10	40	12	42	10	36	9	30

주 : 가사노동은 10세 이상 인구의 1일평균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이며, 가정관리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등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생활시간조사」

- 2014년 맞벌이 가구의 전국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40분, 여성 194분, 2004년 맞벌이 가구의 전국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32분, 여성 208분으로 2014년 남성의 가사노동 부담률(21.2%)은 2004년(15.4%) 보다 5.8%p 증가함. * 같은 기간 비맞벌이 가구 남성의 가사노동 부담률 8.1% → 12.8% (4.7%p 증가)

- 그러나 맞벌이 가구 및 비맞벌이 가구 모두 남성의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여성보다 현저히 적게 나타나 여전히 아동양육이나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등 가족을 신체적·정서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들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표-7〉 맞벌이 여부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 분)

구분	2004				2009				2014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사노동	32	208	31	385	37	200	39	378	40	194	47	376
가정관리	20	167	15	259	24	158	19	251	26	155	25	254
가족보살피기	12	41	16	126	13	42	20	127	14	39	2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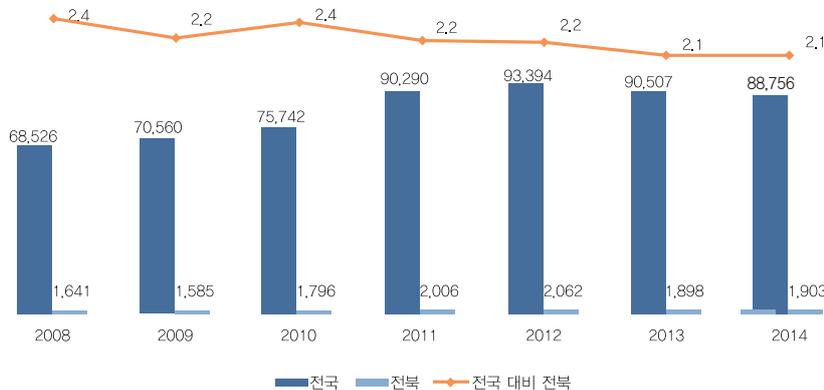
주 : 맞벌이가구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 부부 중 둘 다 취업한 가구, 비맞벌이가구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 부부 중 남편만 취업한 가구임

자료 :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성별 및 맞벌이 여부별 가사노동시간」

□ 출산휴가 사용현황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출산전후 휴가자는 감소추세이나 급여지급액은 증가함
 - 2014년 전국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인원은 88,756명, 전체 지원 금액은 236,845백만 원으로 인원은 전년(90,507명)대비 1.9% 감소하였으나, 지원 금액은 0.7% 증가함
 - 전국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는 2008년 68,526명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전국의 출산전후휴가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출산휴가자 규모와 지원급여 증가
 - 전북의 2014년 출산전후휴가 사용 인원은 1,903명, 전체 지원금액은 5,798백만원으로 전국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인원의 감소 추세와 달리 전년인원(1,898명) 대비 0.3%증가함
 -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법정 출산휴가를 보장하고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에 따라 휴가자 규모와 급여가 크게 증가함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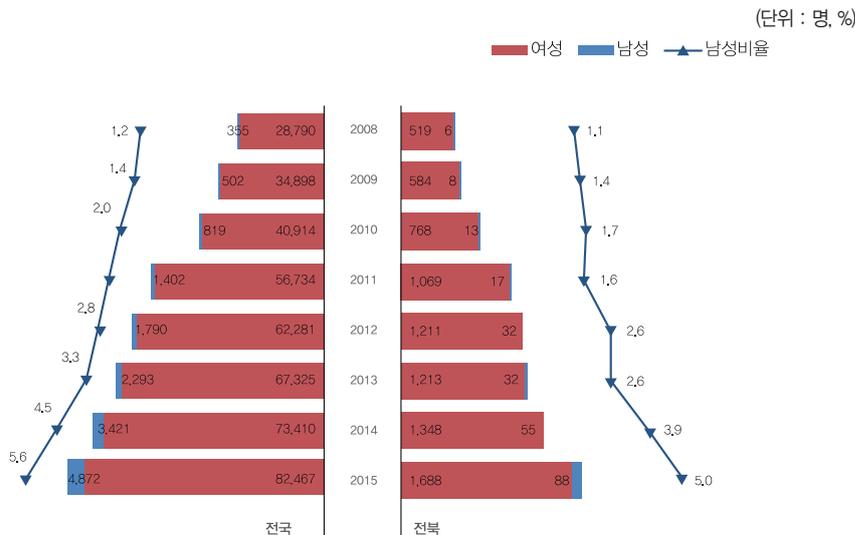
〈그림 2〉 출산휴가 사용건수 추이

주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초회수급인원 기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년도

□ 육아휴직 사용현황

- 육아휴직사용자 수 증가세, 육아휴직 확대 정책 및 일하는 방식 등의 인식변화에 기인
 - 2015년 전국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82,467명으로 2014년(73,410명)과 비교하여 12.3%(9,057명) 증가, 전북은 1,688명으로 2014년(1,348명)과 비교하여 25.2%(340명) 증가함
 - 육아휴직은 2010~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육아휴직 대상연령을 8세까지 확대하고 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등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정책효과의 결과임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 그러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
 - 2015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4,872명, 여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77,595명으로 전국 육아휴직 사용 인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임
 - 전북은 남성 88명, 여성 1,688명으로 전북 육아휴직 사용 인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불과하여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전국의 전체 육아휴직 사용 인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5%에서 2015년 5.6%로 1.1%p 증가, 전북은 같은 기간 동안 3.9%에서 5.0%로 1.1%p 증가하여 전국의 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3〉 육아휴직 사용건수 추이

주 : 사업장 소재지 기준, 회계수급인원 기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년도.

□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³⁾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 직장보육시설을 상생추세, 전북의 의무이행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음
 - 2014년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개소 중 이행 사업장은 903개소(75.0%), 미이행 사업장은 301개소(25.0%)임
 - 전북은 2014년 전체 의무사업장 32개소 중 27개소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84.4%의 이행률을 나타냄. 단 2010년 의무사업장이 32개소로 전년대비 2개소 추가되었으나 이행 사업장은 동일하여 이행율은 전년대비 5.6%p 감소함
- 이행방법 중 수당지급 하락하고 어린이집 설치비율 증가
 - 전북의 경우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은 40.6%로 전년(36.7%)대비 3.9%p 증가하였으며, 보육수당 등 대체수당은 43.8%로 전년(53.4%)대비 9.6%p 감소함. 즉 이행방법 비중에 있어 어린이집 직접설치와 위탁의 비중은 증가하고 수당지급 방식은 감소 추이

3)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단독 또는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를 통해 2012년 이후 의무사업장 및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체가 증가함

- 어린이집설치 증가는「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시행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등 직장보육설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효과가 반영된 결과임

〈표-10〉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단위 :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B)				미이행	
	(A=B+C)		계	설치	수당	위탁	(C)	
2014	전국	수	1,204	903	635	175	93	301
		비중	100.0	75.0	52.7	14.5	7.7	25.0
	전북	수	32	27	13	3	11	5
		비중	100.0	84.4	40.6	9.4	34.4	15.6
2013	전국	수	1,074	877	534	242	101	197
		비중	100.0	81.7	49.7	22.5	9.4	18.3
	전북	수	30	27	11	14	2	3
		비중	100.0	90.0	36.7	46.7	6.7	10.0
2012	전국	수	919	683	359	253	71	236
		비중	100.0	74.3	39.1	27.5	7.7	25.7
	전북	수	26	22	6	15	1	4
		비중	100.0	84.6	27.3	68.2	4.5	15.4

주 : 2012년 조사기준일은 9.30, 2013년 이후 12.31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무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비율」, 2015.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육아휴직자의 직장 유지율⁴⁾

- 2013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는 69,616명,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는 41,418명으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59.5%로 나타남. 이는 전년(57.3%)보다 2.2%p 증가한 수치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유지율은 2009년(51.5%)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이러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과해지는 불리한 처우 및 해고 등의 문제 감시를 강화하고 대체인력 마련 및 기업 장려금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11〉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단위 :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유지율	53.7	51.5	52.6	54.9	57.3	59.5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	29,145	35,400	41,729	58,130	64,069	69,616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15,642	18,243	21,936	31,942	36,712	41,418

주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기준

해당연도 육아휴직자 기준으로 '14년 종료자는 1년이 경과한 '2016년 초에 측정 가능하나 2016년 6월 1일 현재 미발표.

2013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 2016

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당해연도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 2013년 0~5세 아동에 대한 전면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재정은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
 - 2014년 전국의 보육재정은 130,341억원으로 전년(121,887억원)보다 6.9% 증가함. 2014년 전북의 보육재정은 4,091억원으로 2013년 3,925억원 보다 4.2%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전국보다 2.7%p 낮게 나타남. * 보육재정은 2013년 만 0~5세의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으로 보육재정이 대폭 상승한 후 2014년도 계속 증가
- 2014년 전국의 GDP 대비 보육재정 비중은 0.88%로 전년인 2013년 0.85% 보다 0.02%p 증가한 반면 전북의 GRDP 대비 보육재정 비중은 0.92%로 전국의 GDP 대비 보육재정 비중보다는 0.04%p 높으나 전년인 2013년(0.92%)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여 보육재정 확대 필요

〈표-12〉 GDP대비 보육재정 비중

(단위 : 억원, 10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계	61,411	73,299	86,845	3,285	121,887	3,925	130,341	4,091
보육재정								
정부사업	49,404	57,568	76,956	2,895	111,524	3,446	119,497	3,456
지자체특수시책	12,007	15,731	9,889	390	10,363	479	10,844	635
GDP 및 GRDP(10억원)	1,265,308	1,332,681	1,377,457	40,432	1,429,445	42,513	1,485,078	44,623
GDP 및 GRDP 대비 보육재정 비중	0.49	0.55	0.63	0.81	0.85	0.92	0.88	0.92

주 : 1. 정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국비+지방비)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최종예산을 합한 금액임

2. 지자체특수시책은 17개 시도 취합자료
3. GDP는 한국은행, 국내총생산(2010년 기준, 명목), 2014년 잠정치
4. 전국은 GDP 기준, 전북은 GRDP 기준

자료 : 1)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GDP대비 보육재정 비중」, 2016

- 2) 통계청 「지역소득」, 각년도
- 3) 전라북도 행정자료

3. 정책적 시사점 및 활성화 방안

(1) 휴가휴직제도 사각지대(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해소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지금까지 정책의 주 수혜자는 여성, 정규직, 대기업으로 정책사각지대인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필요함
- 특히 전북은 10인 이하 사업장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함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총 19개소(전국 총 1,363개소)로 전년대비 7개소가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에서 일반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일·가정양립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고 있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인식과 관심도도 낮지만 제도도입 시행 그 자체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전북에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 할 필요 있음

(2)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해소

- '14년 기준 전국의 유연근무제의 활용비율은 16.3%로 비교적 낮고 주 출산연령층(30~39세)과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높음. 남녀취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3.8시간(전북 42.1시간)으로 OECD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일·가정양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우리사회의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유연성을 높이는 다양한 근로방식의 진전과 확산이 더딘 이유는 대면문화, 장시간 근로와 전일제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임
- 일·가정양립의 제도 활성화와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와 가사노동 등에 남성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해소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3)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 패키지제도 도입

- 현재의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를 마음 놓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과 행동변화가 더 중요함.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의 실현이 현실화 될 수 있어야 함
- 일·가정양립의 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있음. 따라서 자녀양육과 자기개발, 건강한 아동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지원 제도를 패키지화할 필요 있음
- '항공여객서비스업체인 에어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일·가정양립 패키지제도를 도입한 1호 기업으로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가정양립제도를 통합신청 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입과 확산을 고려할 필요 있음



(4)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한 정책지표 공시

- 일·가정양립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돌봄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미래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일·가정양립 정책은 현재 부서별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어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연계와 효율적 관리와 통제가 미흡함
- 일·가정양립 정책 지표는 정책에 대한 인식, 이용실적의 변화를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유용함. 따라서 일·가정양립지표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매년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변화와 효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해 행정·기관·기업·시민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함

(5)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 일·가정양립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정책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필요함. 센터의 기능으로는 제도 및 사회문화조성, 기업대상의 일·가정양립지원 컨설팅 및 교육, 근로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현재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 대구, 부산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의 기능은 서로 상이함.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서울, 대구)와,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직장맘센터(서울),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워킹맘·워킹대디센터(지자체별 82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음
- 전라북도는 모성보호에 취약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크므로 여성근로자의 노동복지를 지원하는 직장맘센터와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적인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죽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